

사회

또 속았다, 인터넷 장터 '먹튀'

피해 매년 급증... 안전거래 사이트 이용해야

여수경찰 28명에 360만원 가로챈 20대 검거

인터넷 물품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사기범이 불법적으로 대부분 다중사건(1명이 수십명에게 사기를 하는 것)이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데다 경제범죄 특성상 검거에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사기금액도 대부분 2만~50만원에 불과해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0일 여수경찰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윤모(23)씨는 올 초 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를 통해 상품권과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28명으로부터 360만원을 받아냈다. 대표통장과 타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이었다. 윤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50여명에게서 500여만원을 뜯어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런 인터넷 사기 범죄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2008년 2만9290건, 2009년 3만1814건, 2010년 3만5104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사기피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 '더치트'(www.thecheat.co.kr)에만 매일 50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터넷 사기 범죄의 합의를 비율은 5%에 불과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거의 모든 물품 사기 피해자가 합의 없이 돈을 뜯기고 있는 셈이다. 실제 구속된 윤씨도 경찰 조사 결과 사기로 번 돈을 이미 생활비로 탕진했으며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해졌다.

문제는 이처럼 인터넷 물품사기로 인한 금전피해의 증가 추세에도 마

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터넷 중고장터 거래 시 직접 만나 거래를 하거나 다소 금액이 추가되더라도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자가 검거된 뒤에는 법원의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입증돼 유죄 선고를 받았을 경우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내면 유죄판결문만으로 피해금액을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일 경우 되도록 눈으로 직접 보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부득이 하게 택배 거래를 하게 되면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고, 사기피해 예방사이트에서 상대방의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홍보 현수막 버리지 마세요 밭줄로 다시 태어납니다

광주 예비사회적 기업 정당 후보들에 기부 호소



"충선 끝났다고 홍보 현수막 버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맡기시면 산업, 농업용 밭줄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인 '현장사람들'이 4·11총선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홍보 현수막 기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 업체는 버려지는 현수막이 소각돼 위험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 북구 신안동에 공장을 두고 있는 현장사람들의 주력 생산품은 어업, 산업용 밭줄(사진)이다. 공정은 폐현수막에서 나무와 천을 분리한 뒤 천을 세끼줄처럼 꼬아 제품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광주지역 건설 노동자 14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광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데 이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확정됐다. '현장사람들' 관계자는 "유독 경쟁이 치열한 이번 총선에서 버려지는 현수막이 많을 것 같다"며 "현수막이 버려지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62-525-0056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비사회적 기업=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사회적 기업'의 예비단계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6분 해질 19시 02분 달돋이 19시 08분 달질 09시 25분

선택의 날 우산준비

흐리고 비 온 후 아침에 점차 개겠다.

지역	기온	강수량
광주	12/17°C	비
목포	11/15°C	비
여수	13/17°C	비
나주	11/17°C	비
완도	13/17°C	비
구례	13/18°C	비
강진	13/17°C	비
해남	13/17°C	비
장흥	13/17°C	비
순천	13/18°C	비
영광	13/15°C	비
진도	13/16°C	비
전주	13/16°C	비
군산	10/14°C	비
남원	13/16°C	비
홍산도	10/13°C	비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지역	종양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주의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7/17	6/17	7/19	8/20	10/20	12/19

개인정보 구멍 뚫린 소셜커머스 '철퇴' 방통위, 티켓몬스터 등 13곳 시정명령

방통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3개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가 소셜커머스업체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이들 소셜커머스업체가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 등으로 정보통신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사업자 중 (주)티켓몬스터에는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

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포워드벤처스엘엘씨 영업소(무광)에는 과태료 300만원, 그루폰은 과징금 2800만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나머지 10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외에 (주)엘제트케이오일, 엠케이이(주), (주)유니크플랜, ㈜와이제이 그룹 등도 방통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10일 광주시 북구 오정초등학교에서 열린 '한방 비만에방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건강체조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짜게 먹으면 비만 가능성 높다

복지부·동국대병원 분석... 청소년 80% 더 높아

짜게 먹을수록 비만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똑같이 짜게 먹어도 그 위험성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과 함께 2007년~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 짜게 먹을수록 비만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으며 특히 청소년

의 경우 짠 음식과 비만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은 음식의 짠 정도인 나트륨 밀도(나트륨 mg/식품섭취량 g)가 1단위 증가할수록 비만 위험도가 2.7%씩 늘었다. 특히 음식의 짠 정도를 5분위수로 나눴을 때 짜게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비만 위험도가 1.2배로 나타났다. 이는 짜게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비만위험이 20% 높다는 것이다.

7~18세의 청소년의 경우 음식의 짠 정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비만의 상대위험도가 13.2%씩 높아졌다. 음식의 짠 정도를 5분위수로 나눴을 때 짜게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비만의 상대위험도가 1.77배 높았다.

청소년의 짜게 먹는 상위 20%가 하위 20%에 비해 비만위험이 80% 가량 높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학교 분쟁때 교원에 법률 지원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시도교육감 설치 의무화

학교 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교원에게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법률지원단이 구성·운영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의무적으로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해 법률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 교원이 전화로 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정원을 총 500명 증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차단

북구 '맞춤형 위생진단서비스' 운영

단속보다는 진단과 지도를 위주로 하는 '맞춤형 위생진단서비스'가 운영된다.

광주시 북구는 올해 10월까지 지역 내 일반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진단과 분석 평가를 실시, 식중독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맞춤형 위생진단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사고 뒤 점검에 나서는 방식을 벗어나 선 예방·후 안전의 개념을 적용, 위생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견해 운영자 스스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는 이를 위해 식품감시원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진단신청 업체에 보내 식·재료 검사단계부터 보균, 조리, 배식 등 다양한 위생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ATP(세균측정기), 손바닥용 배지, 기구용 배지 등을 이용해 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와 칼, 도마, 행주 등의 조리 기구에 대한 면밀한 검사도 실시한다.

또 진단 뒤 시설환경과 종업원 관리는 현장에서 교육하고, 세균오염도 검사결과를 최종 진단 점수와 맞춤형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사항을 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012 4.14.30

2012 정산도 슬로우걷기축제
2012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느림은 행복이다

SLOW WALKING

건강의섬 완도

4/14, 토 공식행사
슬로시티 청산도 느림의 종 타종식

축제홈페이지 www.slowcitywando.com
공식블로그 www.slowcitycheongsando.co.kr

주최: 완도군 주관: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추진위원회
장소: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청산여수 슬로길 11코스 42.195km)
축제문의 및 사전예약(홈페이지 참조)

완도군은 제14회 합평 나비대축제 [기간: 2012. 4. 27(금) ~ 2012. 5. 8(화)]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2012. 5. 12(토) ~ 2012. 8. 12(월)]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